1주일 뒤, 세계의 중심은 광주

◀ 양학선 (기계체조)
-2012 런던올림픽 도마 금메달
-2013 세계선수권 도마 금메달
-'양2'(난도 6.4)로 도마 금메달 도전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수용인원 8327석
-기계체조·리듬체조

▲ 손연재 (리듬체조)
-2012 런던올림픽 개인종합 5위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인종합 금메달
-2015 아시아선수권 3관왕 (개인종합 후프 곤봉)

▼ 이용대 (배드민턴)
-2008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
-2015 호주오픈 슈퍼시리즈 우승
-고성현과 남자 복식 2연속 금메달 도전

■ 광주U대회 경기장 위치도

1 동강대체육관(농구)
2 염주종합체육관(배구)
3 남부대국제수영장(경영 / 다이빙)
4 염주실내수영장(수구)
5 염주빛고을체육관(유도)
6 광주월드컵경기장(육상)
7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리듬체조 / 기계체조)
8 호남대 축구장(축구)
9 진월국제테니스장(테니스)
10 염주전천후테니스장(테니스 / 우천시)
11 김대중컨벤션센터(펜싱)
12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야구)
13 무등야구장(야구)
14 광주국제양궁장(양궁)
15 조선대체육관(태권도)
16 호남대체육관(배구)
17 전남대 실내체육관(핸드볼)

남부대국제수영장
-수용인원 3290석
-경영·다이빙

진월국제테니스장
-수용인원 3880석
-테니스

광주U대회 주경기장
-수용인원 40245석
-개회식·폐회식·육상

광주 하계 U대회

기간	7월 3~14일 (열전 12일)
장소	광주·전남·전북·충북(조정)
종목	육상 등 정식종목 13개 골프 등 선택 종목 21개
참가	145개국 2만여명
금메달	272개

마스코트 '누리비'

세상을 뜻하는 '누리'와 날다의 비(飛)를 결합한 조어. 빛의 전령사

사진=최현배기자 choi@
그래픽=임은정·유영주

미리보는 리우 올림픽 … 세계의 젊은 ★들 빛고을 빛낸다

7월 3~14일 광주와 전남·북 일원서 열려
육상 등 21개 종목 272개 금메달 놓고 열전
145개국 2만여 선수·임원·심판진 참가

지구촌 청년 대학생의 올림픽인 제28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에서 열린 세계 젊은이의 축제는 지난 1997년 제18회 전주·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지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12년 만으로, 광주·전남에선 첫 대형 종합 국제대회다.

한국선수단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유병진 선수단장을 중심으로 결단식을 갖고 금메달 25개 이상 획득, 종합 3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특히 이번 광주 U대회는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참가, 그 어느 대회보다도 메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광주 U대회의 흥행은 물론 관람객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행운이다. 광주 U대회는 경기 못지 않게 광주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에코버시아드'(Ecoversiade) 대회 운영 비법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다.

총 21개 종목이 열리지만, 70곳의 경기·훈련장 중 신축은 3곳에 불과하고 선수촌도 세계 최초로 도심 재건축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새로지은 남부대국제수영장,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광주국제양궁장 등 3개 경기장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남부대국제수영장에는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적지 않다. 국내 최초의 국제규격시스템을 갖췄으며 다기능수심조절장치, 대형 스테인리스 수조 등 최첨단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돼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리듬·기계체조가 열리는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에너지 절약형 경기장으로 건축돼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를 경기장 에너지 사용량의 26%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장애물 없는 BF(Barrier Free)공간 인증과 화장실 등 세세한 부분부터 방범·치안 등을 고려한 '여성친화경기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 대회를 목표로 선수촌 내에만 의사 20명과 간호사 30명 등 50명의 의료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내과부터 치과, 안과, 한의과 등 종합병원 수준의 시설이 완비된다. 메리스와 에볼라 등 전염병에 대비한 '중앙현장대응 지원단'도 철통 보안에 나선다.

문화도시 광주답게 이번 U대회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도심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전야제, 유니버시아드파크, FISU Gala, 선수촌 문화행사, 경기장별 문화행사, 청년페스티벌 등 모두 6개 테마를 중심으로 대회기간 내내 광주를 축제의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북한 선수단의 불참 통보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개막 직전까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소식을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다.

윤장현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어우러지는 '청년 문화난장'을 통해 한편의 청춘 드라마 같은 역사적인 대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U대회를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로 이끌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주,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청년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미래 유산으로 남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광주U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5개국에서 2만여명 선수와 임원, 심판진 등이 참가하며, 육상과 축구 등 13개 정식종목과 골프, 배드민턴, 핸드볼 등 8개 선택 종목 등 모두 21개 종목 272개 금메달을 놓고 열전 12일을 보내게 된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